

봉헌의 기도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력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소서.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그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혼은 나를 거룩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육신은 나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혈은 나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녹방의 물은 나를 씻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은 나를 격려하소서.

오, 착하신 예수여 나를 들어 허락하소서.

네 상처 속에 나를 숨겨 주소서:

나를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악한 원수에서 보호하소서:

나의 임종 때에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네게로 오게 명하사,

네 성인들과 한가지로

영원히 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제 1 부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소개

하나: 첫 모임

시작: 원으로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밝히고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느끼고있는지 간단히 말하십시오.

시작기도

우리가 누군지 나눔: 당신은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Christian Life Community 앞으로는[CLC] 라는 약어를 사용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 관련된 것 세가지를 말하되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에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나누십시오. 몇분 기다렸다가 준비가 된 사람부터 말합니다. 이때는 서로 듣기만 하지 질문이나 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의:

1) 모임의 형태나 그 밖의 CLC 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여섯번째 모임 때는 CLC 를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지침서에 나오는 2, 3, 4, 5 과를 미리 보십시오.

다음 모임: 다음 번 모임의 주제는 CLC 에서 중심은 사명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모임을 위해서 아래의 질문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1) 언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까지 넘쳐흘렀습니까?

2) 나의 주변 어디에서 가난과 불의를 봅니다?

기도와 묵상을 할 때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의 사명이란 단원에 주어진 성서 구절을 사용해도 됩니다.

모임성찰: 이 모임동안 감동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둘: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의 사명

다음 성서구절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로 불림을 받았는지 식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마태오 25:31-46 (최후의 심판)
- * 루가 10:25-37 (착한 사마리아인)
- * 요한 13:1-5 (발을 씻기심)

사명이란 우리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도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였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형제자매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서로를 돌보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의 근본이념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진리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과 다른 사람 안에 계신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 안에 계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 백성의 존엄성이나 평화를 위해 일하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CLC의 사명은 다른 이를 위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 안에서 가장 잘 이해됩니다. 사명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선물입니다. 자녀가 부부애에서 생긴 선물이듯, 사명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서 생겨난 선물입니다. 불에서 열이 생기듯 우리 CLC의 사명도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는 우리의 사명 안에 잘 표현됩니다. 사명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사명을 이행하지 않으려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나를 택합니다. 내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은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해야 할 어떤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헛되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14-17)

사명을 또 하나의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것은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업계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개인의 사명 혹은 공동체의 사명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CLC를 위해서는 단지 하나의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명을 살아가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식별이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느님에 의해 여기에 불림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끌림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료되는 것,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열정을 느끼는 것, 그것이 열쇠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활기를 북돋우며 또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보다 더 완전한 개인적완성과 자유와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CLC의 사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회원 서로가 이 일을 위해 서로 노력하도록 돕는데 달려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는 회원들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충동을 따르는데 충실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공동의 봉사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CLC의 사명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성부로부터 파견을 받은 것처럼 파견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CLC 사명의 은총은 아래 것 안에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 * 모든 사람과 창조물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냄
- *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시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함
- * 사회의 쇄신과 변혁에 우선권을 둠
- * 차별로 인한 희생자들을 해방시킴
- *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선택을 위해서 분투노력함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 먼 사람에게 새로운 시력을 주고,
 짓밟힌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주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명과 동일시 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사도적이다.

(CLC 정관 8 항; 부록 3 참조)

성찰:

- 1) 내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까지 넘쳐흐르는 것을
언제 체험하였습니까?
- 2) 내 주변의 가난과 불의를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상징: 당신에게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상기시키는 어떤 것을 발견하십니까.

받은 은총: 이 수련동안 무엇이 당신을 감동시켰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셋: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의 영성

다음 성서구절을 사용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로 불림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시편 138: (감사하는 마음)
- * 마르코 1:16-20 (나를 따르라)
- * 마르코 8:28-30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 * 요한 21:1-15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시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CLC가 다른 모든 방법과 다른 것은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냐시오적 영성은 복음을 매일의 일상생활과 통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냐시오적 영성은 이냐시오적 영성에 응답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방법을 장려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한 프로그램의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냐시오적 영성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려는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명에 참여하라는 복음의 부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재음미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속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새롭게 발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냐시오 자신의 회심을 묘사하고 있는 영신수련은 이냐시오의 영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에어로빅입니다. 영신 수련은 읽을 것이 아니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신수련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접근하시고 부르시는 방법에 점점 더 민감해지도록 우리를 이끎니다. 영신수련은 예수님과 같이 하는 여행 길에 있어서 길잡이 노릇을 하며, 일상생활 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영신수련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함께 하는 법을 식별하고 선택하게끔 이끎니다.

다른 영성 전통들은 복음을 사는데 독특한 카리스마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회는 단순함과 가난을 강조하고, 분도회는 공동체와 환대를 강조하며, 도미니꼬회는 정통교리와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강조합니다. 이냐시오적 카리스마는 하느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추구하며, 방법은 식별하는 것이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 보다 더 큰 선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냐시오적 영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냐시오적 영성은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요한에게 있는 가르멜회의 신비주의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관상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영신수련에서 이냐시오의 신비주의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얼굴을 관상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CLC의

영성입니다--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이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모든 창조물의 구원을 위해 일을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참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유에로 부르며 인도합니다.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내적 개방성과 유용성을 '중용'(indifference)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냐시오에게 중용은 따라야 할 길이나 내려야 할 결정에 관하여 "이것이나 저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마음을 끌고 어떤 것은 마음을 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느낌이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들을 식별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시는가를 파악하고 따르게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인 중용-영적자유-은 우리의 느낌을 보며, 하느님께로 이끌리는 느낌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자유는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개방성이 공포와 의심의 마비 상태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일에 대한 기쁨과 평화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비로소 활기를 띠게 됩니다. 영적자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나 때때로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강한 혐오감과 의심을 누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가장 깊고 진실된 원의를 받아들일 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의 조건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느님께 봉헌하고

인간 가족의 일치에 도모하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 은총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하느님께 응답한다.

(정관 1 항. 부록 3 참조)

그렇다면 CLC의 영성은

-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 성령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며,
- 예수님과 협력하는 것이며,
- 예수님과 또 창조물과의 참된 관계를 맺는 것이며,
- 진정한 내적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찰:

1)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2) 오늘 당신의 생활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까? 그 분께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의례 활동: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십시오.

받은 은총: 이 수련동안 마음이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무엇이 당신과 함께 머물렀습니까?

넷: CLC 공동체

다음 성서구절을 사용하여 당신이 CLC 로 불러졌는지를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마태오 18:20 (둘이나 셋이 모인 곳)
- * 루가 10:1-21 (일흔 두 제자의 사명)
- * 요한 15:1-10 (포도나무와 가지들)
- * 사도행전 2:42-47 (공동 생활)

CLC 는 모든 면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교 신앙에 완전히 일치하여 살고자 하는 작은 남녀집단으로 구성된 세계적인 공동체입니다. 지역 공동체들은 세계공동체를 이루는 밑바탕입니다. 지역 공동체들은 서로서로에게 투신한 사람들의 공동체들입니다. 지역 공동체들은 성서를 바탕으로 한 기도와 다른 사람들의 하느님 체험에 대한 경청을 통하여 서로에게 편안해지고, 서로에게 관심과 존경을 둘 수 있으며, 치유를 하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적 사랑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세계공동체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은 CLC 가 지역 공동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LC 의 카리스마는 지역공동체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CLC 는 하느님과 관계를 공동체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공동체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지역공동체의 후원과 사랑의 결속은 순수한 선물입니다.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후원과 사랑의 결속이라는 체험을 더 강화 시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 차원의 CLC 사명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관을 포함시키도록 공동체의 초점을 넓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LC 의 사명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CLC 공동체는 세계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는 사도적 식별을 하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회원들이 자신의 삶의 선택을 식별하는데 있어 서로에게서 후원과 인도를 얻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함께 있어줌으로써 회원들은 서로의 종교적 투신을 자신의 종교적 투신의 일부분으로 떠맡습니다. 달리 말하면, 공동체는 현대세계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CLC 공동체가 서로 돕는 집단 이상인 이유입니다. CLC 공동체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평화를 위해서 사랑의 일을 함께 하자는 그리스도의 초대를 따르도록 우리에게 활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곳이며,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을 식별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CLC에는 한가지 형태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공동체의 형태는 회원들이 서로서에게 또 세상에 대하여 보여주는 보살핌과 관심에서 형성됩니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라는 CLC의 사명에 종사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형태가 잡힙니다. 한 예로, 한 여인이 공동체로부터 받은 후원과 사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전체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끔 이끌었습니다. 지체 부자유 아이들을 위한 여름캠프에서 두 주간에 걸쳐 일한 한 젊은이의 체험이 CLC 공동체에 대한 그의 체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CLC는 그리스도교적 삶의 방식이며 성소입니다.

성찰:

- 1) 공동체에 대한 당신의 체험은 어떠하였습니까?
- 2)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당신의 체험은 어떠하였습니까?

의례 활동: 교회나 공동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보십시오.

받은 은총: 이 수련에서 당신에게 감명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매료시켰습니까? 당신에게 매력을 주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과 유대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들의 노력과 사도적 성취에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양식을 산다.

우리는 사랑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는

친구요 중재자로 교회가 제시한

우리의 영적전통을 따르는 사람들과 결합한다.

(정관 3 항, 부록 3 참조)

다섯: 다른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됨

다음 성서구절을 사용하여 당신이 다른 이들을 위해 살도록 하느님께서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마태오 25:31-46 (마지막 심판)

* 루가 10:25-37 (착한 사마리아인)

* 요한 13:1-15 (발을 씻기심)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봉사하기를 갈구하는 남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적인 공동체입니다. ☆ CLC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 가족의 복지, 창조의 통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음의 가치를 증진시키려 애씁니다. 그리스도처럼, CLC는 하느님의 해방시키시는 자비로운 메시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억압으로 희생된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갈구합니다. 개개 회원들은 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습니다. 공동체 회원들은 다른 이들을 이 생활공동체로 끌어들이도록 애씁니다.

CLC는 어떻게 이를 행할지는 미리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CLC는 이냐시오의 영성의 카리스마를 통하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도록 어떻게 불림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식별하게끔 회원들을 도와줍니다. CLC는 규칙보다는 복음의 정신과 사랑의 내적인 법에 의해 인도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신 이 사랑의 법은 우리 일상 삶의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을 새롭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감도된 이 사랑은 각자의 개인적 성소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항상 하느님의 처분에 따를 수 있도록 회원들로 하여금 개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합니다.

CLC의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존재처럼 우리 ☆ 존재의 가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분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였나 하는 것, 즉 그분의 삶 전체였습니다. CLC의 사명은 하느님의 ☆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행할 뿐이 아니라--하느님의 아들딸로서, 형제자매로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마음의 회심은 하느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CLC 사명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영에 개방되고, 삶의 매 순간에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있습니다. 매일 삶의 일상적인 일과에서부터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행위는 사랑에 기반을

두게 될 때 CLC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CLC의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CLC는 기도모임 이상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CLC 사명은 우리 주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찰:

1)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사목으로 보십니까?

2) 위에 주어진 성서구절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이끄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의례 활동: 다음 두 주간동안 몇 번이고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은총이 당신의 마음에 다가오도록 하십시오.

받은 은총: 이 수련에서 무엇이 당신을 감동시켰습니까? 이 체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감동시키셨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마음이 들어 올려졌습니까? 어떤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다음 모임에서 하게 될 신앙나누기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여섯: 나는 CLC 로 불림을 받았는가?

다음 성서구절을 사용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을 CLC 로 부르시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 * 요한 14:1-18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 * 마태오 11-25-30 (내게로 오십시오)
- * 예레미야 29:11-14 (나는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사무엘상 3:1-10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CLC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우리 자신에게나 서로에게 또 하느님께 마음을 열도록 애써왔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삶에 무엇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나의 삶, 일, 인간관계, 그리고 여가가 어떻게 의미를 갖도록 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냐시오 성인이 하신 것처럼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

지금 문제는, "내가 CLC 를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불려졌다고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CLC 가 다음과 같은 것에 연관된다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 기도예로의 투신: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는 규칙적인 기도
-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서로에게 투신
- 이냐시오 영성에 대해 나누고 성찰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성장
-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원의

※ 우리 자신이 CLC 에 투신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상이며, 그것을 바라는 것이 CLC 의 정신 안에 우리를 자리잡게 합니다. 계속해서 CLC 를 추구하도록 불려졌다고 느껴지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도록 불려졌다고 느끼는가를 식별할 때 다음의 질문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나는 영성적으로 무엇을 찾고있는가?
- * CLC 가 이러한 필요에 도움이 되는가?
- * 이냐시오 영성에 대한 체험이 나의 내적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 * 나는 CLC 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성찰:

1) 주어진 성서를 묵상하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CLC 로 부르시느지를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X 2) 다음 모임에서 신앙나누기를 할 때, CLC 에 관한 당신의 결정을 나누도록 초대받을 것입니다.

X 3) CLC 를 지속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모임을 위해서 단원 7 에 있는 수련을 미리 보십시오.

활동: 다음 두 주간동안 처음 여섯번의 모임에서 한 "청하는 은총"을 기도로 청하십시오. 그 다음, 다음 모임 바로 전에 CLC 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당신의 고유한 표현으로 적어보십시오.

받은 은총: 처음 여섯번 동안의 모임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은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구하는 은총과 받은 은총에 대한 부분을 참조)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이 정관은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과 사랑의 내적 법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이 사랑의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표현한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사랑은

개인의 성소의 유일성을 존중하며,

우리가 하느님의 처분에 항상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보도록 도전하며,

진보와 평화, 정의와 사랑,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추구하는 모든 선의의 사람과 모든 하느님의 백성과 더불어

일하기 위해 현시대의 필요에 끊임없이 응답하게끔 도전한다.

(정관 2 항. 부록 3 참조)